

제2차 '벤처CEO포럼' 개최

협회는 지난 27일 오전 7시30분부터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리딩 벤처기업 CEO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벤처 CEO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초청강사로 초빙된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IT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패널로 참석한 안철수 연구소 안철수 대표, NHN 이해진 대표, 텔레포스 이상현 대표, 한양대 한정화 교수 등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협회는 지난 5월 21일 벤처CEO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확산과 벤처 관련 고급 정보 공유, 벤처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으로 '벤처CEO포럼'을 창립한 바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벤처 CEO포럼'은 지난 창립포럼에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 2차 포럼에 진 장관이 참석하는 등 주요 정책 수장

이 함께함으로써 벤처CEO와 정책책임자간에 '코드'를 맞추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Ventures! Wake up & Run!

- 진대제 장관 주제발표 요약 -



중소·벤처기업의 현황을 보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전체 종사 인원은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총생산액은 대기업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매출 5억원 이하(40%), 10억원 이하(20%)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게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이다.

물론 지금까지 중소·벤처산업이 많은 부분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당경쟁, 수익성 감소, 인력이탈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매년 감소해 오고 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여러가지의 변수가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일, 대기업이 할 일도 많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벤처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벤처 스스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유해야 하는 게 가장 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IT 일등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열면 국민소득 1만 5000달러 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하며, 2010년에는 2만달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Ventures! Wake up & Run!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선도형 과제 발굴 및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디지털 융복합기기 및 부품(SoC, 배터리, 디스플레이) 개발, 인공지능·컴퓨터·정밀기기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정체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산업화, 차세대 통신방송 서비스의 조기 도입으로 국내수요 및 수출기회 창출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핵심기술 개발과 창의적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시스템 정비, 외국 일류기업의 연구개발연구소 국내 유치 및 국가 IR 강화로 수출확대 등 IT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정보화 예산사업 자금 조기 집행 및 지원규모 확대(634억원), 통신사업자 IT투자 조기집행 유도 및 불합리한 구매관행 개선, IT 설비투자 자금 금리인하(5.33%~4.33~4.83%) 등을 통해 벤처기업 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건실한 성장 지원, 기업간 협업촉진 등의 대책이 세워져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IT중소·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다양한 M&A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M&A는 제한된 시장에서 다수 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업경영 부실화를 막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벤처캐피털들에게 새로운 투자회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M&A 대 기업공개(IPO) 비율이 13 대 1이다. 그러나, 한국은 1 대 6에 불과한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대목이다.

현재 M&A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

또, 기존 300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의 중소기업 구조인수 허용, 500억원 규모의 신규 M&A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도 추진 중이다.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출연자금 확대(500억원), 기술담보 대출제도 활성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IT투자조합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통신사업자의 코리아IT펀드를 통한 투자확대 등 장기·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우수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개 해외IT지원센터를 통한 마케팅 및 해외투자 유치 지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기반 마련, 공동 콜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한편, 국책연구소, 중소기업의 지재권을 위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재권 도입시 공동대응으로 로열티 부담경감 및 기술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풀도 만들 계획이다.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의 SI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설정한 관련법도 개정 중이며, 산업용 공공요금의 적용범위 확대도 검토 중이다. **ICoVA**

- 정리·제공 : 전자신문 홍기범 기자